

강진읍 취수장 수질개선·안정적 용수공급 두토끼 잡는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선정...도비 83억 포함 사업비 118억 확보 가뭄·홍수때 수질문제 해소하고 집수장 확대...내년 1월 설계 용역

강진군이 강진읍 지역의 수질개선과 안정적 용수공급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강진군은 내년 신규사업인 '강진읍 취수장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에 선정돼 도비 83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변여과수는 하천 표류수가 강변 하부의 모래와 자갈층을 통과하며 자연적으로 정화된 물로,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하고 정수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방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 하천 표류수를 취하해 문제가 됐던 가뭄 때 수질 기준 미충족 및 홍수 때 급격히 상승하는 탁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8500㎥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사형집수정 방식의 강변여과시설이 신설된다. 방사형집수정은 대용량

취수에 적합하며, 정수처리 비용 절감과 유지관리 용이성에서 강점을 지닌 설비이다.

이를 통해 강물의 수질 변동에도 일정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돌발적인 수질 사고에도 안전한 용수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주민의 생활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이달 내 전남도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내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홍양식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수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안상현(왼쪽 네번째) 나주시장이 이끄는 나주농수산물 캐나다 수출시장 개척단이 토론토 현지 거점 마켓에서 판촉·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진 주작산에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국비 포함 58억 투입...2027년 완공

강진 주작산에 산림레포츠 시설이 들어선다.

강진군에 따르면 산림레포츠 시설 공모사업에 주작산이 선정돼 국비를 포함해 5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내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 완공 예정이다.

조성될 주요 시설은 짙어이름을 활용한 모험체험시설과 자연과 어우러진 등산로, 산림 체험 공간 등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작산 일대에 다양한 산

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자연 속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작산은 수려한 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은 지역으로, 이번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은 강진군의 자연을 관광 자원으로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장성호 관광지 '원더랜드' 조성 급물살

'전남형 균형발전 300' 공모 선정

장성군이 장성호 관광지에 계획한 신개념 관광특화 공간 '원더랜드' 조성 사업(조감도)이 공모 선정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장성군은 전남도가 주관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원더랜드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전남도 차원의 지역 균형발전 사업이다.

장성군은 올해 공모에 '장성 원더랜드 프로젝트'를 제안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도·군비 포함 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한 장성군은 오는 2026년부터 착공하면 장성호관광지 일원에 관광 특화 공간을 조성하는 '원더랜드 프로젝트'

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더랜드(wonderland)는 '동화 속 상상의 나라'라는 뜻이다.

'장성 원더랜드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번 계획은 장성호관광지의 관광인프라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네마 특화 거리', '야간경관', '어린이 복합놀이공간' (자이언트 트리-에어 바운스) 등을 조성에 계획과 관계없이 언제나 즐겨 찾는 명소가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 선정을 통해 낙후됐던 장성호관광지가 사계절 사랑받는 명소가 거듭날 것"이라며 "관광 트렌드, 빅데이터, 지역민·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 대표 관광지서 여행 예능 '지구마블' 촬영

죽녹원·관방제림 등 매력 알려

국내 대표 내륙 관광도시인 전남 담양에서 여행 예능 프로그램인 '지구마블 남도여행' 촬영이 진행됐다.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길을 배경으로 담양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고, 출연진으로 인기 여행 크리에이터 원지가 참여했다.

'지구마블 남도여행'은 주사위를 던져 세계 곳곳의 명소를 탐험하는 지구마블 세계여행의 국내 판으로, 국내 대표 관광지와 숨은 명소를 찾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담양 촬영에서는 푸르른 대나무숲이 인상적인 죽녹원과 푸조나무, 느티나무 등 170여 그루의 나무가 아름다운 풍치림을 이루고 있는 관방제림, 이국적이며 환상적인 풍경의 메타세쿼이아 길 등 담양의 대표 명소가 소개됐다.

2024년 산림청 주관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문화체육관광부 로컬 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선정돼 가치를 인정받은 곳들이기도 하다. 이번 촬영분은 내년 3월 방영될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촬영을 통해 담양의 매력이 널리 퍼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담양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희 기자 hhdh@

나주시, 농수산물식품 캐나다 수출 확대...56억원 협약

수출 개척단 토론토 판촉·홍보

민선8기 6개국 3270만달러 협약

나주시가 북미 최대의 수출시장으로 평가받는 캐나다에 지역 농수산물 가공식품 판로를 확대 개척했다.

나주시는 최근 나주 농수산물식품 수출 개척단이 캐나다를 방문해 한국식품 유통 전문업체 '팬 아시아푸드(Pan Asia Food)'와 400만달러(55억7000만원)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수출 개척단엔 안상현 부시장을 비롯해 이상만 시의원, 임봉의 나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서재홍 나주배원예농협 유통사업단장, 지역 식품업체 대표 등 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토론토 현지에서 농수산물식품 수출협약과 판촉·홍보 활동을 적극 펼쳤다.

방문 기간 수출협약과 함께 팬아시아푸드 직영 마켓 4곳, 중국 마켓 2곳에서 나주배, 쌀, 배, 사과, 누룽지, 김 등 우수 농수산물식품 홍보·판촉 행사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또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권태한 부총

영사와 나주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를 포함해 문화·관광산업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민선 8기 들어 농수산물식품 수출시장 다변화에 힘쓰고 있는 나주시는 이번 캐나다 수출협약까지 포함해 6개국과 총 3270만달러(455억원) 규모의 수출 물량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상현 나주시 부시장은 "캐나다 수출시장 개척에 함께 참여해 준 지역 업체 대표들과 호남향우회원들의 애환심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수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주 농수산물식품 수출시장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물 공급 안정 총력

개발사업 예산 25억원 확보

화순군이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주민들의 친환경 대체 취수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 사업을 위해 지난 6월 전남도에 상수도분야 전환사업 예산을 신청하여 확보된 예산은 전체 사업비 25억 원 중 70%를 전환사업비(17억 5000만원)로 지원받고 나머지 30%는 군비(7억 5000만원)

로 부담된다.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은 백아면과 이서면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자원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가뭄 시 용수 확보와 관련된 부분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에 대응하고, 취수원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화순군은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 및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백아정수장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이고 가뭄 상황에서의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로 이서면, 백아면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흥군 '표고버섯 명가' 재건 추진...신품종 흥화 집중 육성

버섯산업연구원 시범재배 보고회

재배 확대·차별화 육성 방안 논의

장흥군이 표고버섯 신품종 흥화를 앞세워 지역 버섯산업 활성화와 재배 농가 소득향상에 나선다.

장흥군은 원목재배 표고버섯 신품종인 흥화1·2호의 시범재배 성과를 토대로 지역 버섯산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표고버섯 원목재배는 30여년 전 도입된 외래품종이 시장을 90% 이상 점유하고 있지만, 최근 기후와 재배환경 변화로 품질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은 2014년부터 외래 품종 대체와 지역 맞춤형 신품종 확보에 나서 우수 신품종 2종을 개발해 출원했다.

2022년부터는 시범 재배를 시작해 현재 관내 16개 농가에서 표고버섯 원목 5만6천본을 재배하고 있다.

시범 재배에서 흥화1호는 외래품종보다 맛·향·육질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생산량도 3년 차부터 외래품종보다 1.2배 증가했다.

흥화2호는 고온성 품종으로 연중재배가 가능하



김성(오른쪽) 장흥군수가 버섯 중요요소를 찾아 표고버섯 신품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고 생산량이 많아 가공제품 소재 개발 등에서 재배 농가로부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회를 열어 흥화1·2호 신품종의 이 같은 내용의 육성 경위와 시범재배 성과를 공유하고, 재배 확대 및 차별화 육성 방안도 논의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표고버섯 중장기 발전 프로젝트 흥화 신품종 개발을 시작했는데 오랜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며 "흥화가 장흥의 차별화된 고 유품종으로 자리 잡아 지역 표고버섯 산업 발전의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군, 친환경농업 국고지원 공모 선정

함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하는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국고지원 공모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쌀·원예·가공 등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유통에 필

요한 시설을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함평군은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선정된 단체는 친환경 농업회사법인 나비글팜으로, 친환경 벼를 연간 1천1 이상 수매하며 학교

급식, 쌀 가공식품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함평군은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저온 저장시설·무세미(無洗米) 가공시설 등 생산 기반을 갖출 예정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